

교회 2011: 개혁 촉구

가톨릭교회의 위기에 대한 신학교수들의 성명서, 2011년 2월 4일

베를린 카니시우스 학교에서 발생한 ‘사제 및 성직자들에 의한 학생 성폭행 사건’이 폭로된 이후 1년이 족히 지났다. 이 사건으로 독일 가톨릭교회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복잡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옹호하고 부정에 맞서며 폭행, 침묵, 이중윤리의 원인을 교회 내부에서 찾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여러 성직자 및 평신도들은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권력구조, 의사소통구조, 교회 운영구조, 신자들의 참여구조, 그리고 도덕과 성에 대한 열린 대화를 촉구하는 데는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위기를 외면하고 축소함으로써 마비와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내포되어 있다. 금기 없는 완전한 열린 대화는 만만치 않은 긴장을 낳는다. 하물며 교황의 방문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러나 열린 대화의 대안으로 ‘죽음의 침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희망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폭행스캔들과 그에 관한 오랜 은폐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까지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학교수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에 공헌할 책임을 느낀다. 2011년은 교회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에 전에 없이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교회를 떠났다. 그들은 교회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도권교회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활기와 신뢰를 새롭게 회복하고 싶다면, 교회는 이런 징후를 이해하고 경직된 구조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교회의 구조채신은 사회적 차단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비판하고 외부로부터의 비판적 자극을 수용하는 용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지난해에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공개적인 비판 없이는 지금의 성폭행 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 교회는 오직 열린 소통을 통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외부에 비쳐진 모습과 교회의 진짜 모습이 서로 일치할 때 비로소 교회는 신뢰받을 수 있다. 우리는 교회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몇몇 주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대담, 설교,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개혁과 대화의 신호를 토대로 한다.

교회는 목적 자체가 아니다. 교회는 해방이자 사랑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릴 임무를 갖는다. 교회는 오직 복음이 전하는 자유의 장소이자 믿을만한 증인이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교회의 언행, 규칙, 구조 그리고 교회 내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인간의 자유를 하느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 양심의 자유 인정, 법과 정의 옹호,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과의 연대가 바로 복음이 교회의 의무로 제시한 신학의 기본척도이다. 이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체화된다.

복음이 전하는 자유를 지향함은 현대사회와의 차별을 내포한다. 대부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 인정, 성숙함, 개인의 책임에 관한 한 이런 지향은 교회보다 우선한다. 이미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강조했듯이 교회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능력으로만 평가되고 상호간의 연대가 무너지며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이 사회에서 복음의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판은 필수불가결하다.

어떤 경우든 복음이 전하는 자유는 교회의 신뢰성, 태도, 사회적 위상에 대한 척도다. 지금 교회가 직면한 개혁 요청은 결코 새로운 도전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개혁을 위한 열린 대화가 다음의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참여 구조: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신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복음이 전하는

자유를 지향하는 시금석이다.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면 모두가 결정해야 한다.” 라는 격언에 맞춰 교회의 전 영역에 더 많은 회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직책(주교, 신부)의 임명에 신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현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언제나 투명해야 한다.

2. 공동체: 교회공동체는 사람들이 영성과 물질을 서로 나누는 장소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는 공동체적 삶을 침식시킨다. 사제의 부족으로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 커져 이른바 ‘XXL 본당’이 형성되었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친근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기 어렵다. 역사적 정체성과 성숙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포기되었다. 사제들은 ‘과부하’ 상태로 탈진한다. 신자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공동책임을 갖지 않으며 공동체 운영에 민주적 구조를 통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멀어진다. 교회는 공동체의 삶에 봉사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 운영을 위해 결혼한 사제와 여성사제도 필요하다.

3. 법문화: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인정은, 갈등이 상호 존중 속에서 공정하게 해소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교회법은 신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제 구실을 한다. 교회 내의 권리보호와 법문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교회행정법체계 구축이 그 첫걸음이다.

4. 양심의 자유: 개인의 양심을 존중함은 인간의 결정능력과 책임능력을 믿는다는 뜻이다. 이런 능력을 후원하는 것 역시 교회의 임무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대리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적인 삶의 결정과 개인적인 삶의 방식 영역이라면 더욱 성심껏 후원해야 한다. 교회가 결혼한 가정과 독신생활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사랑과 신뢰 그리로 상호간의 돌봄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동성애자커플이나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을 폄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5. 화해: ‘죄인’과 연대하려면 먼저 교회 내부의 죄인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독선적인 도덕 엄숙주의는 교회와 맞지 않다. 교회가 스스로 나서서 폭행과 강제를 통해 복음이 전하는 자유를 무자비한 도덕 엄숙주의로 바꾸고, 그로인해 내부의 죄인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화해의 전제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회는 결코 하느님과의 화해를 청할 수 없다.

6. 미사: 모든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모든 전례는 활기를 띤다.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과 표현방식이 전례 안에 녹아들어야 한다. 미사는 전통주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 다양성은 미사의 생명을 풍부하게 하며 일률적 통일 경향과는 맞지 않는다. 믿음의 축제인 미사가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수용할 때 비로소 교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모든 당사자들이 시급한 물음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시작된 교회의 대화 과정은 해방과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주장을 교환하고 마비된 자기물두에서 교회를 구해낼 해법을 찾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 지난해의 폭풍 뒤에 어떤 고요도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은 다만 ‘죽음의 침묵’일 뿐이다. 두려움은 위기에 대처하는 좋은 자세가 결코 아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용기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걸으라고, 복음은 -예수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인에게 호소한다. “너희는 어찌 그리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적었던 말이나?”

서명자 명단 보기: www.memorandum-freiheit.de